Question 34

하늘을 수놓는다!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

블랙이글(Black Eagles)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 팀워크가 필요하기 때문에 공군 내에서도 일명 엘리트만을 선발한다.

블랙이글(Black Eagles)은 에어쇼만을 전담하는 대한민국 유일의 특수비행팀입니다. 하늘에 태극모양이나 하트를 그리는 등 30여 개의 기동으로 전국 각지에서 다양한 에어쇼 행사에 참가하고 있습니다. 최상의 공군력을 지닌 몇 안 되는 국가만이 보유한다는 특수비행팀이 우리나라에도 현존한다는 것은 자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고 조종사에게만 자격 부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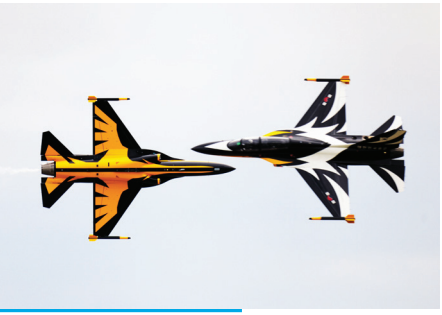
특수비행을 하기 위해서는 고도의 집중력과 기술, 팀워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블랙이글 조종사들은 공군 내에서도 일명 엘리트만을 선발한답니다. 총 비행시간 최소 800시간 이상, 비행교육과정 성적 상위 1/3 이상, 항공기 4기를 지휘할 수 있는 편대장이어야 특수비행팀에 선발될 수 있습니다.

실제 블랙이글 조종사들은 위 조건을 넘어서 평균 약 1,200시간의 비행 경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는 최소 8년간의 조종사 생활을 해야만 쌓을 수 있는 기록인 만큼 베테랑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한 팀워크를 중시하는 특수비행팀이기 때문에 기존 팀원들의 찬성이 만장일치를 이루어야 최종적으로 해당 조종사의 선발이 가능하다는 특수한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최고의 전투기로 편대 형성

우리 공군의 특수비행은 1953년 국군의 날 행사의 일환으로 당시 최고의 전투기였던 F-51(Mustang)이 사천비행장에서 시범을 보인 것이 시초입니다. 그 후 1962년에는 F-86(Sabre) 기종으로 본격적인 에어쇼 팀의 성격을 갖춘 곡예비행을 한강변에서 처음 선보였습니다. 이후 1967년에 F-5(Freedom Fighter)를 거쳐 1994년부터는 A-37(Dragonfly) 기종으로 활발한 대국민 홍보활동을 펼쳐왔고, 2009년 최초의 국산 초음속항공기 T-50(Golden Eagle) 8기로 재탄생하였답니다. 그리고 2011년 에어쇼 전용 항공기 T-50B의 전력화로 지금의 웅장한 블랙이글 편대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외형부터 차별화된 블랙이글



블랙이글의 T-50은 겉모습부터 다른 전투기와는 확연히 다릅니다. 특수비행을 전담하는 항공기답게 화려하지요. 항공기 윗면은 검은색과 흰색, 아랫면은 노란색으로 도색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독수리를 형상화하고 있어서 멀리서 보면 마치 독수리가 하늘을 가르는 것처럼 보인답니다.

기동 중 연기는 스모크

보통 블랙이글의 뒤쪽에서 나오는 연기를 항공기의 배기가스로 혼동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름 같은 연기는 배기가스가 아니고 일종의 연막(Smoke)입니다. 이 스모크는 특수오일을 분사 노즐로 내보내는 과정에서 고온의 엔진 열에 의해 발생되는 것으로 블랙이글에게는 하늘에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물감과도 같습니다.